

동아시아 상호 이해를 위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시론적 연구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를 중심으로-

김다원*

A Study on East Asia Cultural Diversity in Geography Education: Centered on 「Human Relationship and Living-Habit」 Culture

Da-Won Kim*

요약 :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이 유교 문화권으로 일컬어져 온 지역이지만 유교 문화권 안에서 발달했던 가족 중심의 문화, 전통 문화, 대인 관계 등의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에서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고, 앞으로 국가간 교류의 활성화와 원활한 의사소통, 인간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리수업에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을 위한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교과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 지리 영역 단원과 단원별 성취 기준을 분석하였고, 분석에 의거하여 초, 중, 고등학교 수준에 적합한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주요어 : 동아시아, 문화다양성, 인간관계, 생활습관, 지리교육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ontents for geography education about East Asian cultural diversity. I chose 「Human Relationship and Living-Habit」 culture among East Asian diverse cultures and fixed 4 themes: family cultures, traditional cultures, friendship cultures and relationship cultures with other people. For making the lesson contents for East Asian cultural diversity, I analysed Geography 2009 Revised Curriculum and presented specific contents differently depending on grades. Until now, static and homogeneous cultures in East Asia have been emphasized mostly at school but cultures that are dynamic and related to students' life are proposed in this study. Through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of the East Asian cultures, it will be possible to expand mutual understandings among the East Asian people. This study will be a good alternative and paving the way for enhancing cooperations in East Asia.

Key Words : East Asia, Cultural Diversity, Human Relationship, Living-Habit, Geography Education

1. 서론

21세기 향후 사회는 문화적 감성과 창의적 능력을 지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 다문화 사회의 흐름이 가속화 되면서 이제는 세계라는 범주 안에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사회속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2003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1회 '동아시아 공동체(EACOS, East Asia Common Space)포럼'에 참석한 제레미 리프킨은 "문화 없이는 네트워크경제도 없다. 문화가 중심이며 실제 경제 행위는 부산물이다. 21세기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어디나 접속할 수 있는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파견교사 (Dispatched Teacher, National Training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eritas2@chol.com

네트워크의 시대이다. 이렇수록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였다(Chosun, 23/Nov/2003). 이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 교류의 우선을 지적하는 것이다. 문화는 지역 공동체의 전초 역할자로 상호 교류의 선발주자이면서 동시에 상호 교류의 촉진자와 같은 존재이다. 세계화 현상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세계화 이전에 문화적 세계화가 우선하고 있는 것에서도 교류의 전초 역할자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문화는 정치, 경제에 비해 더 쉬우면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유럽 공동체 형성의 배경에는 지역과 문화는 달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져 온 문화적 교류와 공감대의 형성이 있었다.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문화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금과 같은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서로 여건과 상황을 달리해 온 국가들의 지역 협력, 공동체 구상, 상호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적인 다양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문화에는 교육력과 영향력이 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흥미가 쏠고, 다름의 인식과 이해를 통해 공감해 가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문화에 관한 지식을 취득하므로써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의미있는 행위, 즉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다(Kwon, 1988, 99). 그리고 문화 다양성 교육은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다른 생활양식, 세계관,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획득하고 기능을 기르며 다른 집단과 국가 사이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Huh and Jung, 2009, 46).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서로가 더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상호 이웃에 대해 상호 무지와 오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과 당황스러움을 많이 겪고 있다(Kim, 2002, 1). 우리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삶의 보람으로 느끼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

고 있지 않다. 나아가서 3국은 서로 다른 나라의 현재 사정이나 주민의 생활 등에 관하여 지식도 적고 관심도 많지 않다(Koh, 1993, 278). 그리고 많은 한중일 학생들은 같은 아시아의 일원이면서도 서로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힌 편견과 차별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Nishimura, 2005, 257). 그러나 앞으로 한중일 3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 가능성, 당위성, 그리고 필요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간 오랫동안 동아시아 문화권 안에서 문화적 유사점을 찾아보면서 유사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를 교육해 온 것에 더하여, 이제는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얼마나 다른 문화와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떻게 다른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지만 구체적인 생활 문화의 차이는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작용은 많은 갈등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문화적 동질성과 문화적 차이점을 찾아 이해하도록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은 미래 지향적인 동아시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 영역이다.

문화 다양성 중에서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는 한중일 3개국 공통의 정신 문화였던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두어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문화다. 유교 문화권이라는 공통의 문화권 안에서 각국의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 공간의 차이에 따라 어떤 다른 문화가 발달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생활습관」은 사람들이 다른 환경과 경험 속에서 서로 다른 욕구를 추구해 가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화의 한 부분이다. 오랜 생활 경험에서 만들어진 문화이기에 생활 깊숙이 내면화되어 개인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어있는 과거와 현재의 가치가 내재된 문화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와 생활습관」문화는 만남의 지속성과 상호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가장 먼저 알고 이해해야 할 문화이기도 한다. 만남 자체가 인간관계와 일상 생활습관 문화에 의해 그 지속성과 관계의 우호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가 갖는 의의와 가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2009개정교육과정 지리수업¹⁾에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가능성과 의미를 찾고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리는 학생들에게 실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제공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의미의 지도’를 만들어 준다(Morgan, 2001, 89).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어떤 영역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뿐 아니라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 이젠 지리적 개념에서의 공간적 실체 뿐 아니라 문화적인 실체로서의 동아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지리적 안목도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리수업에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찾고 교육으로의 방향 모색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찾아가고자 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으며, 한중일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화 다양성 인식의 특성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앞으로의 지속적 연구를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

1) 동아시아 문화 관련 선행 연구 검토

동아시아 관련 연구는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닌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근자에 들어 동아시아를 둘러싼 담론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그간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의 개방화와 세계화로 인한 교류의 활성화가 한몫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상호

교류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 국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관계를 만들어갈 필요성을 안고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교류, 나아가서 상호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알아야 한다. 서로를 알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의 문화와 역사도 포함된다. 특히 오늘날에는 문화적 가치가 점차 힘의 원동력이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면서, 동아시아 관련 연구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을 다시 생각해 보고 동아시아 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Koh, 1993; Kim, 1995; Jung, 1997; 山本久美子, 1995; Yee, 1995; 瀬地山角, 1995; Han, 1996; Kim, 1998; Kim and Kim, 2005). 이 연구들에서는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갈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의 동질성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의 다양성을 바라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역사의 장구함에 비해 서로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이루어졌다(Park, 1995; Kim, 2002; Kim and Kim, 2005, 149; Jin, 2005; Moon, 2006; Sohn, 2007; Park, 2008; Kim, 2010). 그리고 동아시아가 현재 유교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고 일컬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한자 문화권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Koh, 1993, 285; Han, 1996, 1730; 山本久美子, 1995, 130; Kim, 1998, 12; Kim, 1994, 15). 즉, 같은 한자문화권이지만 한중일 각국은 모두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며, 같은 유교 문화권 안에서도 중국은 신(信), 한국은 효(孝), 일본은 충(忠)을 중요한 유교적 덕목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라는 범주 속에 넣은 이들 나라 사이에는 문화 교류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각각의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 아주 틀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교, 한자, 벼농사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서 발달한 생활문화는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현실이다. 즉, Park(1995)은 한중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귀속의식, 인간관계, 가족에 대한 의식, 삶의 질에 대한 근거 인식을 주제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중일 사람들은 모든 주제 영역에서 인식의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Moon(2006)은 동아시아에서 근대 발생했던 전쟁에 대한 역사인식 비교를 하였다. 한중일 삼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근대 발생했던 같은 전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Park(2008)은 동아시아인들이 갖는 단맛과 짠맛에 대한 인지도 및 기호도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한중일 3국 사람들은 단맛과 짠맛의 인지 정도 및 기호도가 다름을 제시하였다. Kim(1998)은 동아시아 공산화 문화의 비교 연구를 통해 신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Sohn(2007)은 한중일의 전통의복을 통해서 한중일 민족 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오랜 역사적 교류의 과정을 거쳐왔지만 한중일의 동아시아는 풍토의 차이, 공간의 차이, 자연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와 의식을 형성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Kim(1995)은 요즘 나타난 한류 문화의 성찰을 통해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 한류 문화를 개발하고 우리도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Kim(2010)은 유럽 연합의 사례에서 처럼 새로운 공동체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Jin(2005)은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 교류의 허브 도시 건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같음을 바탕으로 하는 동질성의 추구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으로의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즉, 이제는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차이점을 찾고 인식하는 문화적 다양성 교육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함께 가져야 한다.

2)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

광복 후 60년간의 우리나라 최근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하기 보다는 주변 나라들의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지금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리고 미래에도 아마 큰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중국,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나라들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나라들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간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역사적, 문화적, 안보적 공감대가 결여되어 왔다(Park, 1998, 139). 불교, 유교, 한자, 벼농사의 공통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생활 속 문화를 들여다보면 독자적인 영향력과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켰고 전통의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간 긴밀한 우호적인 상호 연계성을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영토 분쟁을 위시한 정치적 갈등이 동아시아 전체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통합과 상호 우호 협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한중일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본 연구자는 당시 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적이었다. 청소년들에게는 한일간 적대적 감정과 비우호적인 태도가 아주 깊게 스며들어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감정은 매일매일 듣고 보게 되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세계에 대한 인지는 축소된 세계화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 노출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이해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Song and Kim, 2002, 366)는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한중일간 상호 문화 및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서도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는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일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게 해버리는 스테레오 타입적인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미디어라는 안경을 쓰고 보고 있지만 안경테 자체가 빼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Tabuchi, 2005, 29).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학생들

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타문화를 이해하여 편견과 고정 관념으로 가득차 있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다른 나라에 대한 인지의 특징을 보면, 상징적인 장소, 상징물과 관련하여,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서적 감정들에 의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and Kim, 2002, 376). 일본과 중국은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도 가까이 위치해 있으면서도 정서적 감정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나라들이다. 과거 역사적 사건들, 오늘날의 정치적 갈등, 경제적 갈등 등이 보이지 않게 교류되고 있는 한중일 우호적인 민간 교류 등에 비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에 대한 불행한 기억과 2차 대전 후 전후 처리에 대한 일본의 미흡함, 그리고 오늘날 겪고 있는 독도 영토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역사 인식의 문제가 한일간 한 가운데 걸쳐져 있고, 중국의 경우도 지난날 중국 제국 중심의 화이질서, 중국의 한반도 침략, 남북문제, 동북공정 문제 등의 역사적인 문제들이 두 나라간 중간에 걸쳐져 있어서 동아시아 공동체로서의 의미는 아주 약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Kim and Kim, 2005, 147). 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활발한 경제적 교류 만큼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갈 수 있는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교류의 미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상호 문화 교류의 활성화와 상호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이해의 바탕과 기초가 너무나도 부실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자, 불교, 유교, 벼농사 문화권이라는 공통의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고, 그간 같은 문화권으로서 발달시켜 온 문화적 유사성이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만큼이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동력으로 작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 간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보다도 앞으로 이들 나라들과 정치,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사회, 문화, 학문, 예술,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 우리의 미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다. 문화란 그것을 향유

하고 생활의 근간으로 삼으며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의미 있다. 문화적 동질성의 추구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다양성에 대한 인식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문화는 자연 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간의 적응 방식의 산물로서 다양함을 그 속성으로 하기 때문이다(Kim, 1998, 15). 즉,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확인과 인정의 자세, 그리고 동질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의 요구나 기대를 넘어서야 한다. 또한 실천 차원에서도 다양성을 찾아야 한다. 문화는 사람들에 의해 실천되어지는 것이고 머릿 속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며 상징과 상상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며 같은 문화체계 일지라도 그 환경적 조건에 따라 달리 실천되는 것이며 동일한 형태라도 그 실천의 내용과 의미는 다르게 나타난다(Kim, 1998, 21). 이를 통해 서로를 바로 볼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잘못 인식된 편견과 고정 관념을 바라 잡아 주고 균형잡힌 안목으로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배려의 마음은 '서로 다름'이라는 차이에 대한 지식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과거 경험들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초월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대 문화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하여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편견과 고정 관념을 극복해 낼 수 있다(Standish, 2009, 91).

3)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에서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같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문화권 내 국가들이지만 한중일이 중시하는 유교적 덕목이 다르고 사용하는 문자가 다른 것처럼 구체적인 생활문화와 인간관계 문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문화는 그 문화를 형성하는 집단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집단이 지니고 있는 생활습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집단이 지닌 생활습관과 가치, 그 집단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은 문화의 핵심이 된다. 인간관계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인간의 상호 작용 관계를 말한다(Jung,

2002, 240).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 생활은 인간 삶의 필연이며 사회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인간 관계는 인간 그 자체의 삶인 것이다. 인간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실존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생활습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자신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현재의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생활습관은 개인이 지닌 습관화된 것으로,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진 사회 규범과 원리에 따른 행동이자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적응하는 행동 양식이다. 그리고 생활습관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문화 보편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 온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화 특수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Lee, Kim, and Lee, 1996). 그러므로 개인의 생활습관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현재의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자 전통 문화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와 생활습관」문화를 안다는 것은 상대를 만났을 때 갈등과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고 자심감 있는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는 능력이자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중에서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문화를 다른 문화와 구별 짓는 첫째의 특징으로 '가족' 이 조직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山本久美子, 1995, 123).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이 '가(家)' 중심의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전통 문화이자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속성이다(Jin, 2001, 44). 그리고 가족 간 관계의 문화는 사회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 및 회사와 같은 직장 조직 문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瀬地山角, 1995, 154). 결국 가족간 관계의 문화는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배경이 되면서 동시에 개인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간 관계 문화는 개인의 일상 생활습관과 개인의 인간관계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adamer(1996)는 '전통(tradition)' 이란 조상 대대

로의 문화가 누적된 역사성을 지닌 가치 및 신념 체계로 보았다. 전통문화는 현재의 삶 속에 녹여져 있는 정신과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문화는 현재의 일상 생활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즉, 전통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고유한 삶의 모습과 정신의 결정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은 그 사회에서 태어나 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의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현재 개인이 갖는 가치나 관습, 통념의 문화는 전통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 문화이자 일상 생활습관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래들과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이를 친구관계(friendship)라고 한다(Perry and Bussey, 1984). 사람들은 관계 맺음의 최초의 장소인 가족으로 부터 점차, 가족 구성원의 타인, 그리고 또래 집단과 관계 맺기를 확대해 간다. 친구와의 관계 맺기에서는 가족과의 관계 맺기에서 보였던 자기중심적인 문화에서 타인에 대한 의식, 가족관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 경험을 갖게 된다(Youniss, 1980). 또한 친구관계는 또래 집단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한 관계의 영역으로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정서적 반응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Furman, 1996). 친구관계는 자발적으로 개인적 수준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정신적인 상호 작용을 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개인적 문화 체험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협소화되어 가는 가족관계의 문화를 대신하여 개인의 정체성과 개인의 인간관계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언행에 대한 태도는 가족관계, 친구관계를 확대하여 공공 생활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화이다. 친구관계에서는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연령이 갖는 인식 문화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후 공간적인 관계를 확대하여 개인의 생활 범위에서 연령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생활습관 문화와 인간관계 문화를

형성해 간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족 간 관계의 문화, 친구관계의 문화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문화를 보는 것은 개인의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요소가 된다.

가족에 대한 인식과 관계,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친구에 대한 인식과 관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관계의 문화를 고찰하는 것은 한중일 상호 교류의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의 교량 역할자로서의 문화적 리터러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즉, 중국과 일본인들이 우리와 다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차이점을 발견할 길을 찾으며, 그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갖추어 가는 것이다. 앞으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계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일상 생활습관과 인간관계의 문화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 유교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동질성 안에서 한중일 각 나라가 발달 시켜온 가족과 조상에 대한 특별한 생각과 관계, 그리고 생활권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문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화를 차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살펴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 지리수업에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내용 구성

1)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가능성 모색

지리는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지리 공부를 잘하면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되어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세계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Ryu, 1999, 211). 지리 교육에서는 국제적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을 바르게 앎으로써 국제이해를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Ryu, 1999, 216). 또한, 지리는 다양

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지리에서는 다른 지리적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문화의 차이점들을 묘사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적 접근이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문화에 치중해 온 부분이 많았다. 지난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동아시아 학습 내용을 분석해 보더라도 묘사적 접근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초등 6학년 (4) 함께 살아가는 세계 단원의 중단원 이었던 (가) 우리와 관계가 깊은 나라들, 중학교 1학년의 (5)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의 중단원이었던 (가) 경제가 성장하는 동부 아시아 단원에서는 자연 환경과 주민 생활 모습 그리고 산업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 왔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참고 학습 영역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을 다루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로는 유교, 젓가락 사용, 한자, 도자기 문화를 제시하였으며, 차별적인 문화로 의식주 문화를 제시하였다.³⁾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관련한 경제 활동 위주의 현대적 문화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외현적인 생활 문화 학습은 전통 대대로 습관화된 내면의 가치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실행의 역동성을 제공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한중일간에는 오랜 교류의 역사를 지닌 만큼 오랜 세월을 걸쳐 겪어왔던 역사적인 사실들과 이에 대한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와 경제 발달의 모습은 서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 요소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활문화의 이면에 숨겨진 내면의 가치와 전통 문화를 반영한 생활 습관 문화에 관심을 갖고 지리적인 공간의 차이, 지리적 풍토의 차이, 지리적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의 다양성을 지리 학습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2011년, 올해부터 시행될 현행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동아시아 문화 학습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래 Table 1과 같다. 단원과 학습 내용 영역을 살펴보면, 3학년 「다양한 삶의 모습들」, 4학년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6학년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7학년 「지역마다 다른 문화」, 세계지리 영역

Table 1. Unit analysis of 'East Asia cultures' learning in Geography 2009 Revised Curriculum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동아시아 문화' 학습 가능 단원 분석

Grade	Possible units of 'East Asia cultures' learning	Learning Aims
Third Grade	· Diverse Features of living	· Observe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students living in different regions.
Fourth Grade	· Places related to our place	· Identify the locations of the nations related to our nation and observe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al and human surroundings.
Sixth Grade	· Nature and cultures of world-wide various areas	· Know the cultural difference of the world-wide various area, cultivate an attitude of world peace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eventh Grade	· Diverse cultures	· Explain the cultural similarities and interrelationships of East Asia centered on our country
Tenth Grade	· Diversity of cultural landscape	· Understand meaning of cultural landscape and analyze the regional differences of diverse landscapes.
World Geography	· The journey which starts toward the world · The world of conflict and coexistence	· Understand the cultural diversity of Asia through examples of religious landscapes. · Seek solution-methods and observe the conflict regions by differences in religion and language.

Sauce: Geography 2007 Revised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세계로 떠나는 여행」 「갈등과 공존의 세계」 등의 단원에서 동아시아 문화 학습이 가능하다. 단원별 학습 내용의 성취 기준에서 3학년의 경우 '다른 지역 학생들의 문화를 파악한다.', 4학년에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해한다.', 6학년에서는 '세계 여러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알고,' 7학년에서는 '세계 각 지역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세계지리 영역에서는 '다른 지역을 이해할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기른다.'를 제시하여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 비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단원과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9개정 교육과정 사회 1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문화」 단원 내에 '동아시아 문화' 학습 중단원이 있어서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함하는 문화 다양성 수업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원 구성은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을 학교 수업에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과서에서의 동아시아 문화 내용 분석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발한 교육과학기술부 검정 교과서 중 동아시아 문화 학습 단원을 설정하여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중학교 사회 1 교과서를 대상으로 동아시아 문화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중학교 사회 1 교과서 중 무작위로 5종 교과서를 선정하여 VI-3. 동아시아 관련 단원을 분석하였다.⁴⁾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아래 Table 2와 같다.

A~E 교과서에서는 「동아시아는 한 가족」, 「동아시아 문화권의 과거, 현재, 미래」, 「동아시아의 이웃 문화」,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성」,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문화」 등의 중단원명을 제시하고 있다. 단원내 학습 내용을 보면, A 교과서의 경우,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과 문화 교류를 다루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그 배경을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서술하였고, 구체

Table 2. Contents analysis for 'East Asia cultures' learning in Geography 2009 Revised Curriculum Textbooks. 교과서내 '동아시아' 관련 학습 내용 구성 분석

Text	Unit	Contents
A	* East Asia is One Family 1) Commonness in East Asia 2) Cultural exchanges with other Asian countries	· East Asia Cultural Area · Common cultures: Buddhism, Confucianism, Chinese character, Rice farming · Popular cultures in East Asia
B	* Past, Present, and Future in East Asia 1)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2) East Asia Cultures with similarity and endemism	· Cultures diffusion from China through Korea to Japan · Cultural commonness in East Asia · Popular cultures in East Asia
C	* Cultures in East Asia 1)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2) Cultural commonness in East Asia	· East Asia Cultural Area · Cultural commonness in East Asia
D	* Cultural commonness in East Asia	· Cultural commonness and the factors in East Asia
E	* Korea and East Asia cultures	· Cultural commonness and Cultural exchanges in East Asia

Sauce: Geography 2007 Revised Curriculum

적인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로는 벼농사, 한자, 불교, 유교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문화 교류의 사례로 한류와 대중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B 교과서의 경우, 동아시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에서 상호 문화 교류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중국→한국→일본으로의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의 공통성과 고유성을 가진 동아시아를 소단원으로 하여 상호 교류를 통해 공통성도 갖고 있지만 고유의 문화적 차이점도 가지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문화의 공통점으로는 A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한자, 불교, 유교, 벼농사 문화를 다루고 있다. C 교과서의 경우,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그 문화권 안에서의 공통적인 문화와 상호 교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D 교과서의 경우,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에 중점을 두고 형성 배경으로 상호 교류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E 교과서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상호 교류를 통한 동질적인 문화권 형성과 한자, 유교, 불교, 벼농사의 문화 요소를 소개하고 있다.

위의 교과서 내용 분석에 의하면, 동아시아 문화 학습 내용이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범주 안에서 동아시아 문화가 갖는 공통점과 유사성,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동아시아 문화 학습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범주 안에서의 동질성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문화를 배워갈 수 있는 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학습 내용 구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화적 공통점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의 이질성을 포함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방향으로의 문화적 리터러시 함양 교육이 지향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 - 「인간관계와 생활습관」문화를 중심으로 -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학년 「다양한 삶의 모습들」, 4학년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 6학년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7학년 「지역마다 다른 문화」, 세계지리 영역 「세계로 떠나는 여행」, 「갈등과 공존의 세계」 등의 단원에서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 교육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 학습을 위한 학교급별, 학년별 내용 구성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없기도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에서의 단원별 성취 기준과의 연계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원별 성취 기준에 의거하여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단원 및 성취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의 성취 기준은 「고장, 지역, 국가의 서로 다른 학생들의 문화를 알아보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조사한다」 이고, 초등 4학년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곳들」의 성취 기준은 「우리 지역과 관계 깊은 다른 지역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조사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해한다」 이고, 초등 6학년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단원의 성취 기준은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알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국제 협력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다. 단원별 성취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초등 수준에서는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문화 다양성 수업 내용 구성이 가능하다. 중학교 1학년 「지역마다 다른 문화」단원의 성취 기준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성과 상호 관련성을 설명한다」 이다. 이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볼 때, 동아시아 문화권 내의 문화적 공통성과 미래 지향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수업 내용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 함양 교육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어,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볼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문화적 차이점을 포함하고자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세계 지리 영역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갈등과 공존의 세계」 단원의 성취 기준이 「종교 경관을 사례로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한다」, 「종교, 언어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지역을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다.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동아시아 내 불교와 유교 경관이 세 나라에서 각각 어떤 차별적인 경관 문화를 만들어 냈는지, 사람들의 종교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해결 방법 모색을 학습 주제로 설정할 수 있다. 종교는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 중 하나로서 생활습관 및 인간관계 문화 형성의 기본 사상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 종교 경관 문화에

대한 학습은 동아시아 전통 문화, 개인의 일상 생활습관 문화, 개인의 가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

그리하여 다음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학교급별 단원과 성취 기준과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에 의거하여,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의 학습 내용을 아래 Table 3과 같이 구성내용을 제시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 학습 내용 구성은 동일 주제 영역을 활용하였고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심화하는 과정을 적용하였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에 대한 학습은 초 → 중 →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열적인 내용 구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 사례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급에 따라 학생들의 인지 범위 수준에서 내용의 심화 확대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친구에 대한 인식과 타인 행동에 대한 인식은 내용의 심화 확대를 적용하지 않았다. 친구에 대한 인식과 타인의 언행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수준의 상호작용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취 기준과 연계하여 초등에서는 다양한 문화 익히기, 중학교에서는 상호 비교, 연계 짓기, 고등학교에서는 문제점을 찾고 발전적인 방향 설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 초등수준에서는 가족의 인식 범위, 가족의 연중 행사, 가족간 대화 유형의 차이를 찾아보는 것으로 하였다. 가족의 연중 행사에서는 가족의 생일을 사례로 하여 가족간 유대감과 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초등에서처럼 가족 문화를 대상으로 하지만 3국간 가족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상호 교류 및 지리적 환경의 차이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한중일 가족 문화의 범위를 넓혀서 조상 숭배 문화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가족과 조상숭배 문화를 세계화 시대와 견주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발전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지속가능 발전 사회와 연계하여 가족 문화와 조상 숭배 문화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Table 3. Contents of 「Human Relationship and Living-Habit」 cultures.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의 학습 내용 구성

Subject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Recognition about fami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much different is the recognition about famil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Family Birthday Event -Conversation among Family -Annual Family Ev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ameness and difference of relationship culture among family's members in Korea, China and Japan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Relationship with parents -Conversation with family -Annual Family Events · Why these are differ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ameness and difference of family culture in Korea, China and Japan -Ancestor worship culture -Relationship with parents -Conversation with family -Annual Family Events · Sameness and difference of family ancestor worship culture · Globalization & Family Culture · Family culture & ancestor worship culture from for sustainable society
Recognition about traditional cul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is the sameness and the difference in traditional cultures in Korea, China and Japan? -Traditional holidays' ceremonies -Traditional events of 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ameness and the difference of traditional culture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traditional holidays' ceremonies -Traditional events of community -Necessity of traditional cultures' succession and development · Exchange of traditional religious cultures in Korea, China and Jap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ameness and the difference of traditional religious culture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sameness and the difference of religious landscapes -The sameness and the difference of religious cultures · Exchange of traditional religious cultures in Korea, China and Japan.
Recognition about friend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eans and contents with friends · Understanding of friend's conducts · The necessary things for maintaining a good friendship · Ways of dealing with conflicts between friends. · Globalization & Friendship 		
Recognition about words and behaviors of other pers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fference of sympathy about words and deeds of other persons - The word and deed which is sympathized. - The word and deed which is not sympathized. · Ways of dealing with conflicts between people. · The meaning of Living Together and the ways for living together.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초등수준에서는 한중일 전통문화의 다양성을, 중학교 수준에서는 전통문화의 다양성과 발달 배경, 상호 교류를 통하여 나타난 문화의 동질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 형성 배경을 찾도

록 구성하였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한중일 전통 문화 중에서도 종교 문화에 초점을 두고 종교 경관, 종교 생활 문화를 찾도록 구성하였다. 종교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상호 교류, 시대적 배경과 연계하여 살펴

보도록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종교 경관 문화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친구에 대한 인식’ 과 ‘타인의 언행에 대한 태도’ 에서는 초, 중등 공통적으로 한중일 친구관계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해결 방법,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구성하였다. 친구관계와 타인의 언행에 대한 태도에서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 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문화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으로서 인간관계의 존재 방식과 일상 생활습관 문화에 대한 학습은 차별적이고 독자적인 역사를 통해 어떤 생활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동시에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포함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상호 작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길러주는 교육으로의 방향이 필요하다.

4. 결론

우리는 인종, 민족, 언어, 생활습관, 인간관계 등의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1세기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적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인구 이동의 증가, 문화 교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우리와 다른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과 대면 접촉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는 시점에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지구적 태도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또한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상호 의존성의 증가에 따른 상호 교류의 활성화는 다른 한편으로 상호 마찰과 갈등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기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기나긴 상호 교류의 역사를 가졌지만, 그 만큼이나 많은 역사적 사건

들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어떤 다른 지역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한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문화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 특히 한중일은 웬지 모르게 친근감을 느끼고 문화적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 양식이 통용된다고 생각하면서 개별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함에서 오는 서로간의 오해와 갈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과 경제 공동체 형성을 지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구적 공동체 안에서 동아시아의 우호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더 많이 알고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의 대안으로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 문화 다양성 수업을 제안하였다. 문화 다양성 영역 중에서 「인간관계와 생활습관」 문화를 설정하고 세부 주제 영역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친구에 대한 인식, 다른 사람의 언행에 대한 태도 인식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2009개정 교육과정 지리 영역 안에서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설정 제시하였다.

이는 그간 유교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라는 아주 커다란 범주 안에서 정태적이면서도 동질적인 문화만을 강조해 오던 동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실생활 문화 속에서 문화적 다양성 찾고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경제적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로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보이는 동아시아 3국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상호이해를 도모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

- 1) 2009년에 개정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리 교과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 2) 일본 도리샤 고리 중학교·고등학교 니시무라 카스히토 (Nishimura Katsuhito) 선생님의 의뢰로, 한국 학생들이 일본에 대해 느끼는 이미지, 감정에 대해 수도권 내 중소 도시에 소재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기간은 2009.12월이었고 설문 문항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일본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2. 일본 중 고등학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 응답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1번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2번 설문 문항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 응답을 제시하였다.
- 3) 초등 6학년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들」 단원 내용: 중국과 일본의 문화는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 한자를 사용하고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을 사용하며, 유교의 영향을 받아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등 공통점이 많다. 그 까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세 나라가 오랜 옛날부터 서로 문화를 주고 받았기 때문이다(사회 6-2, 2009, 72). 중학교 1학년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생활」 중국에서 발달한 유교 사상과 한자는 동부아시아로 전파되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고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를 짓는 점 등은 세 나라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사회 1, 2009, 133, 금성출판사).
- 4) 김주환 외, 2009, 중학교 사회 1, (주)교학사; 서태열 외, 2009, 중학교 사회 1, 금성출판사; 허우궁외, 2009, 중학교 사회 1, (주)교학사; 박승규 외, 2009, 중학교 사회 1, 더텍스트, 김종욱 외, 2009, 중학교 사회 1, (주)교학사의 5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Chin, J. C., 2005, The Construction of the Cultural Community in East Asia and Its Implication for Chuncheon City, *Research for humanities & Science*, 13, 247-266 (in Korean).

Furman, W., 1996, The measurement of friendship perception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Bukowski, W. M., Newcomb, A. F., and Hartup, W. W.(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Jersey, 68-70.

Gadamer, H. G., 1996, *Truth and method, Continuum*,

New York.

Hahm, C. B., 2000, *Confucianism, capitalism, democracy*, Tradition and Modern, Seoul (함재봉, 2000,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통과 현대, 서울).

Han, K. G., 1996, Looking for the fact that is East Asia?, *Literature & Society*, 36, 1716-1741 (in Korean).

Hoebel, E. A., 1971, The Nature of Culture, in Shapiro, H. L., *Man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Huh, Y. S., and Jung, C. H., 2009, Die Ansaetze zur Verankerung der interkulturellen Bildung an Schulen vor Ort in ein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19(3), 31-55 (in Korean).

Jin, D. G., 2001, Globalism and the Pattern of East Asian Nationalistic Response, *The Culture and Thought of East Asia*, 39-60 (in Korean).

Jung, J. S., 1997, East Asia Cultures, The possibility as a transcendence, *Sang Sang*, Summer, 68-81.

Jung, T. B., 2002, *School Management System*, Kyoyookbook, Seoul (정태범, 2002, 학교경영론, 교육과학사, 서울).

Kim, D. W., Huh, S. H., et al., 2010, Research on curriculum and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for mutual understanding of Korea, China and Japan, *The 11th Annual Conference on EIU,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71-188 (in Korean).

Kim, H. K., and Kim, S. K., 2005, Conditions and Prospects for Building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Cultural Homogeneity, Diversity and Identity,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d*, 23(1), 137-157 (in Korean).

Kim, H. S., 1998, The Creation of East Asian Myths and Their Later Transformation, *Asia Culture*, 14, 299-336.

Kim, I. K., 2005, *The Confucian culture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Hanul Academy, Seoul (김일곤, 2005,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유교문화, 한울아카데미, 서울).

- Kim, K. O., 1998, Interpretive Analysis of Discourses on the East Asian Culture, *Korean Studies Quarterly*, 21(1), 1-26(in Korean).
- Kim, K. R., 2010, *The Necessity and Promotion of Cultural Network Form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Relation to Relevant Experiences of the European Union*, Donga University Master Thesis.
- Kim, S. D., 2002, Transnational Flow of Media Culture and Perception of Others in East Asia: A Reflexive Criticism on the Hallyu, or Korean Wave' Discourse, Seminar and Report of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10(in Korean).
- Kim, Y. W., 1994, Proto-type and future of Korea, China and Japan, *Forum 21*, 9-18 (in Korean).
- Koh, B. I., 1993, Distance and integration of East Asia countries, *Creation and Criticism*, 79, 276-288 (in Korean).
- Kuk, M. H., 2007, *Development and The Confucian culture in East Asia*,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Gwangju (국민호, 2007, 동아시아 발전과 유교문화, 전남대학교출판부, 광주).
- Kwon, O. J., 1988, *Human Education in Globalization*, BaeYoung Publishing, Seoul (권오정, 1988, 국제화시대의 인간 형성, 배영사, 서울).
- Lee, E. H., Kim, H. J., and Lee, S. Y., 1996, Developing an Assessment Scale for Children's Basic - Life - Habi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6(2), 161-177.
- Lee, J. I.(translation), 2001, Global literacies: lessons on business leadership and national cultures: a landmark study of CEOs from 28 countries, Sejong, Seoul (이종인 역, 2001, 글로벌 리더십의 조건, 세종서적, 서울; Robert, R., Patricia, D., Marshall, S., and Carl P., 2000, Global literacies: lessons on business leadership and national cultures: a landmark study of CEOs from 28 countries, Simon & Schuster, New York).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2007 revised educational curriculum* (교육과학기술부, 2007).
- Moon, J. Y., 2006, *History consciousness comparis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Dong Guk University Master Thesis.
- Morgan, J., 2001, The seduction of community: to which space do I belong?, Lambert, D., and Machon, P.(eds),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secondary geography*, Routledge Falmer, London, 87-97.
- Nishimura, M., 2005, Korean-Japanese history and way of future, The 6th Annual Conference on EIU,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257-267 (in Korean).
- Park, D. J., 1995, Future consciousness comparison of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youths, *Forum 21*, 213-231.
- Park, H. J., 2008, *A study on the ability of Northeast Ato detect sweet and salty tastes and their preferences for those tastes*, Kyung Hee University Master Thesis.
- Park, K. J., 1998, The Asia community, reality or myths?, in The Sejong Institute, *Asia and Globalization: Confrontation of East Asia countries*, Seoul (세종연구소 편, 1998, 아시아와 세계화: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 세종연구소, 서울).
- Perry, D. G., and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New Jersey.
- Ryu, J. M., 1999, Philosophic Lecture of Geography education, Hanul, Seoul (류재명, 1999, 지리교육학 철학 강의, 한울, 서울).
- Sohn, W. S., 2007, National Identities of Korea, China, and Japanese Depending on the Traditional Costume, *Asian Comparative Folklore*, 34, 301-336.
- Song, U. G., and Kim, J. I., 2002,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a Rationale for a World Geography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y*, 8(3), 364-379 (in Korean).
- Standish, A., 2009, *Global Perspectives*, 2009, Routledge, New York.

김다원

- Tabuchi, I., 2005,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culture other than politics and economy, *The 6th Annual Conference on EIU,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29-38 (in Korean).
- Yee, E. R., 1995, Chaos figure of Asia civilization, *Forum* 21, 26-36.
-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ndon.
- 山本久美子, 1995, Present and Future of East Asia culture, *Forum* 21, 123-131 (in Korean).
- 瀬地山角, 1995, Toward the plural Orient, *Forum* 21, 152-160 (in Korean).

<http://www.chosun.com/>

교신: 김다원, 421-826,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까치울중학교(이메일: veritas2@chol.com, 전화: 032-684-3412)

Correspondence: Da-Won Kim, Kachiwool Middle School, Yowol-Dong, Ojeong-Gu, Bucheon, Kyeonggi-Do, 421-826, Korea (e-mail: veritas2@chol.com, phone: +82-32-684-3412)

최초투고일 2011. 1. 18

수정일 2011. 2. 25

최종접수일 2011. 2. 26